

코닝사 협업작가 Bryan Paik(백철호)의

흘러 지나가는 시간의 조각들

2019. 9. 4 Wed ~ 9. 9 Mon

10:00 ~ 19:00

Gallery

ins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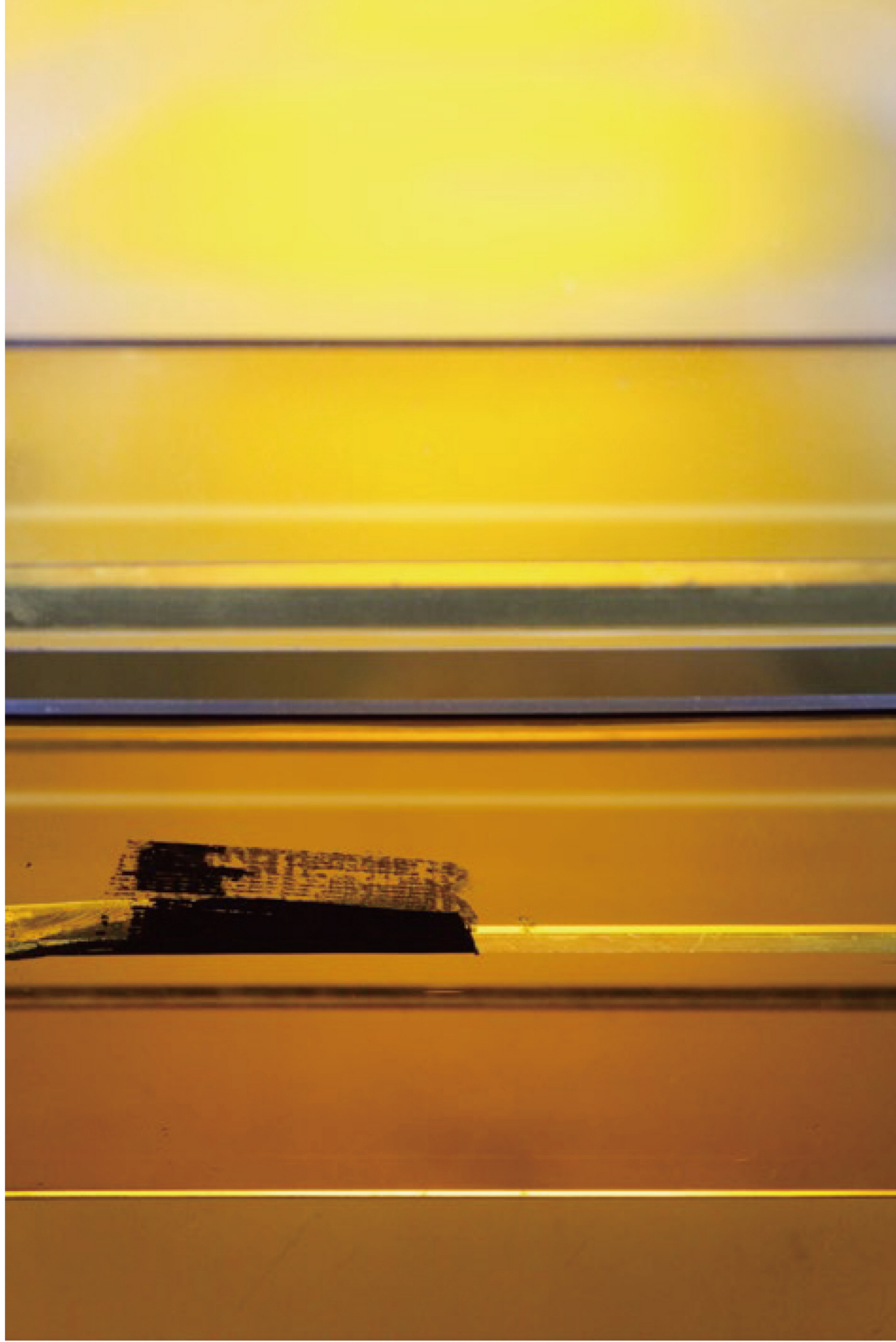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56 갤러리 인사아트 3층전시장 +82 (2) 734-1333 www.galleryinsaart.com

흘러 지나가는 시간의 조각들

전을 준비하다

2012년 6월, 프랑크푸르트에서 카셀로 가는 고속열차 ICE 밖으로 향한 렌즈를 통해 보랏빛 라벤더 꽃의 색이 카메라 감광판으로 쏟아져 들어 온다. 그때 감광판에 기록하고 간 시간의 조각들은 때로는 촘촘하게 때로는 넓은 여백의 무수한 선으로 그 흔적을 남긴다. 이렇게 나의 첫 추상사진이 탄생하였다 (작품 Passing by lavender fields of Kassel). 비디오가 아닌 스틸 사진의 작품이지만 왼쪽에 보이는 선들은 먼저 지나간 시간의 조각들이고 오른쪽의 선들은 0.01초 후의 빛의 흔적들이다. 하나의 작품속에 시간의 흐름을 그 흔적의 궤적 (trajectory of the trace)을 통해서 확인 하고 음미할 수 있다. 차창 밖 풍경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열린 카메라 조리개 속으로 채집한 색과 빛의 흔적들을 모아 “흘러 지나가는 시간의 조각들”전을 준비하였다. 문명의 잔재인 스모그가 전혀 없는 아득히 먼 홉카이도의 숲 속에서, 장노출로 열려진 카메라 파인더를 통해 채집된 원시의 녹색들이 있는 그대로 첨단 테크놀로지를 통하여 코닝사의 얇은 유리판에 각인된다. 그 빛의 흔적들은 형체를 흐트러뜨린 미니멀리즘적인 추상의 형태로 재구성되고 표현되었기에 선입견없이 우리의 망막 안으로 고스란히 흘러 넘어온다. 한가지 개인적인 바램은 추상회화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지만 나의 작업의 장르는 여전히 현대회화의 영역에 머물고 싶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1998년 발표한 나의 첫 컴퓨터그래픽 작품인 Digital Madonna도 함께 발표한다. 이 작품의 독창성은 한 pixel의 이미지와 전체 이미지가 같다는 데 있다. 이 작품은 2001년 4월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제 7회 서울판화제에 출품되었고 그 해 월간미술 4월호에 서울판화제를 소개하는 기사의 대표 이미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 작품은 그동안 여러 번 Diasac 기법으로 출품해 왔으나 이번에 코닝사의 ‘Gorilla Glass’에 얹어서 다시 한번 출품한다. 훨씬 얇아지고 가벼워진 디스플레이 기술은 현대 주거환경의 세련된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미술품으로 자리잡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모든 작품들은 대형 건물의 로비에 딱 차는 10m×10m 혹은 10m×6m 의 거대한 크기로도 제작할 수 있다.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코닝사의 art wall 사업의 협업작가로서 단조로운 현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을 열대림의 색과 빛으로 (작품 Tropical Forest) 혹은 여명의 빛으로 (작품 Daybreak) 채우고 싶은 열정에 휩싸인다.



시간을 흔들어 빛을 흔들나

정수경 (미술비평가, 서울대학교 미학과)

무엇인지 모를 환한 빛이 눈을 잡아당긴다. 이 빛나는 느낌의 연원이 어딘가 싶어 몇 걸음 다가서면 비로소, 작품이 얇은 유리에 전사된 사진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 같은 머리의 깨우침이 사뭇 때늦음은, 이미 눈과 마음이 그 빛에 오롯이 사로잡힌 뒤기 때문이다. 이처럼 백철호의 사진 작품에서 보는 이를 매혹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색인데, 이번 전시에 사용된 코닝의 고릴라 글래스는 디아섹에 비해 얇은 두께감과 더 높은 투과감으로 사진이 지향하는 바, 사진 자체가 빛나는 듯한 느낌을 한층 강화한다.

그렇다. 애초에 모든 사진이 꿈꾸는 궁극의 지경은 빛의 차원이다. 카메라 옵스큐라에 맺힌 마법처럼 빛나는 상을 볼 들끓은 마음에서 비롯된 사진의 탄생도, 은판을 사용하여 사진에 거울 같은 투명함을 더하고자 했던 다게르의 아이디어도 빛에 대한 희구를 품고 있는 것이다. 디아섹이나 유리 전사 방식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을 사용한 모든 사진이 그토록 지극한 빛의 차원에 가 닿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점은 백철호의 작품에서는 색과 빛이 알파와 오메가의 스펙트럼을 오간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아마도 답은 카메라를 흔들며 피사체의 상을 지워버리는 그의 사진적 행위의 의도와 효과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의 사진은 언뜻 순수 추상화처럼 보이지만, <Red Lily>, <Sapporo Downtown> 같은 제목들은 그의 사진이 구체적인 피사체를 지닌 것임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그의 카메라는 분명 특정한 피사체를 향했던 것이지만, 피사체의 구체적 형상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흐릿듯 뒤섞인 색감, 유려한 동세와 선형의 궤적만이 작품을 가득 채우고 있다.

때로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때로는 그저 핸드워크를 통해 백철호는 카메라를 흔들고, 그리하여 일반적인 장노출과는 다른 방식으로 피사체를 털어낸다. 카메라의 초점은 흔들지 않는 장노출 사진의 경우, 털어내지는 것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다. 그러나 카메라를 흔들면서 노출을 길게 하면, 털어내지는 것은 사실상 모든 형상이다. <Fossil>은 그 과정과 결과를 절묘하게 보여준다. 각각의 의도와 효과는 분명히 다르다. 백철호의 기법은 형상성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 혹은 형상성과 조형성을 맞붙게 만드는 태도를 암시한다.

형상을 지닌 시각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형상성과 조형성은 언제나 동시에 작동하게 되는데, 지각심리학자들이 다양한 실험결과를 통해 알려주듯이 지각 과정에서 한끝이라도 우선성을 지니는 것은 어쩔 수 없게도 형상성이다. 즉 우리는 작품을 선, 색, 구도 등의 순수 조형으로 바라보기에 앞서 작품 속 '무엇'을 알아보는 인지과정을 먼저 수행하는데, 이 인지가 충족되는 과정이 종종 작품의 조형성에 대한 부지불식간의 간과를 가져온다는 점은 여러 비평가들에 의해 누누이 지적되어온 바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즉 형상인식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조형에 대한 정당한 주목을 잃지 않을 길은 없을까?

이번 전시에 포함된 백철호의 전작 <디지털 마돈나>는 작품에 사용된 작은 픽셀들의 이미지가 반복되어 작품 전체 이미지를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형상인식을 조형인식의 구조로 재편함으로써 그 대립 구조를 해소해보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외견상 완전히 달라 보이는 <디지털 마돈나>와 이번 신작들은 동일한 예술의욕의

산물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즉, 그간의 작업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선호는 시공간의 축을 움직여 피사체의 모습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변형 작업, 그리고 그 결과로 추상화된 작품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순수 조형적이고 회화적인 시지각 작용인 듯하다. 이는 작업 노트에서도 명시적으로 언급된다. “한 가지 개인적인 바램은 추상회화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지만 나의 작업의 장르는 여전히 현대회화의 영역에 머물고 싶다.”

그리하여 이번 전시 작품들은 장노출과 카메라 워크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붙드는 성격을 공유하지만, 개별 작품들에서 그 궤적은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Winter Sonata>나 <Fossil>에서처럼 다소간의 형상이 흔적처럼 남은 경우도 있고, 아주 작지만 색가의 대비가 심한 피사체로 인해 의외의 콘트라스트나 동세가 생겨난 경우도 있다. 때로는 강한 붓자국 같이(In the Museum), 때로는 부유하는 반딧불이 같이(Digital Firefly), 또 때론 먼 바다에서 조용히 밀려오는 잔물결 같이(Coming Over). 이들은 전체를 장악한 선형적 방향성으로 인해 자칫 밋밋해질 수도 있었을 화면의 전면성을 파기하여 섬세한 역동감을 만들어내는 기특한 우발성이다. 그 중에서도 <In the Museum>의 검은 색면, <Under Construction>을 가로지르는 대각선의 띠, <Sliding on the slippery surfaces>의 오른편 하단을 무심히 스쳐가는 가느다란 불빛 같은 선은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보는 이의 시선을 작품에 붙들어 맨다.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는 그 붙들림을 누군가는 사진의 풍크툼이라 부를지도 모르겠다. 무엇이랴 부르건 중요한 것은, 형상이 사라지고 예기치 않았던 색과 선과 구조와 움직임만이 남은 작품에서 우리가 시선과 함께 마음을 뺏기고 야 말았다는 사태이다. 아마도 이는 백철호 사진의 빛나는 추상성이 보는 이의 기억 한 켠에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색으로 저장된 빛나는 추억의 감각을 되살려내었기 때문은 아닐까. 프루스트가 스완네 집으로 향하던 길 어딘가에서 풍겨오는 마들렌의 달콤한 냄새만으로 어릴 적 추억과 그 시절 감성을 오롯이 떠올렸던 것처럼, 따뜻한 햇살 아래 동네 친구들과 뛰놀던 행복의 순간과 감정이 추상사진의 빛나는 노랑, 주황, 연두 속에서 고스란히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백철호의 작품이 보여주는 빛나는 색감과 부드럽고도 역동적인 움직임의 지각은 단순한 망막 지각 경험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느꼈던 행복의 경험을 소환하는 감성적 경험이 된다. 그리하여 백철호의 이번 전시작들은 통상 ‘대상 옮겨 놓기’로 여겨지는 사진이 힘을 발휘하는 방식이 ‘대상 알아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이의 시지각에서 일어나는 조형 요소들의 순수 미적인 작동 방식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감성적인 경험임을 깨닫게 한다. 이는 심지어 초상 사진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인 <In the Museum>은 그 제목이 참으로 공교롭다. 미술관 공간과 그 공간에서 발견한 얼룩을 찍은 이 작품이 마치, 우리가 미술관에서 작품을 본다는 것이 결국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말하기라도 하려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구상이건 추상이건, 사실적 작품이건 표현적 작품이건, 하나의 시각예술 작품이 우리를 사로잡는 근원적 힘은 그 작품이 지닌 시각적 특질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색’으로 표명되는데, 그 ‘색’이 실은 ‘빛’에, 그리고 그 빛을 지각하는 우리의 ‘지각’에 있다는 사실을 백철호는 말보다 직관적이고 선포한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In the Museum>이 그 사진이 촬영된 미술관에 대해 아무 것도 보여주거나 알려주지 않음에도 우리는 그 앞에서 넋을 잃고 한동안 붙들려 있는 것이다. 이유 없이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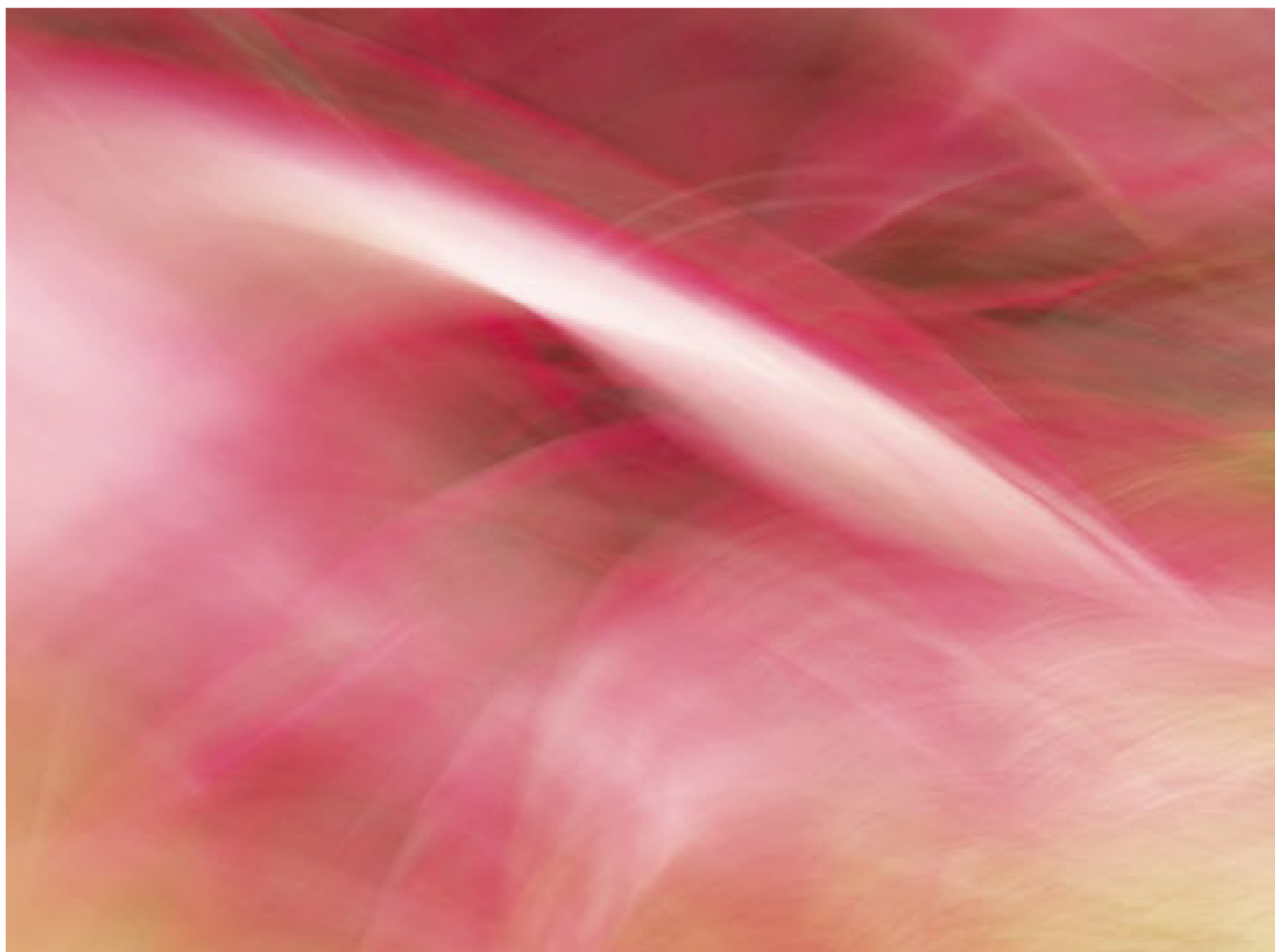
| **Digital Firefly** 80 × 120cm Corning Gorilla Glass 2019



| Sliding on the slippery surfaces 80 × 120cm Corning Gorilla Glass 2019



| Fossil 120 × 180cm Díasec 2019



| Red lily 120 × 160cm Corning Gorilla Glass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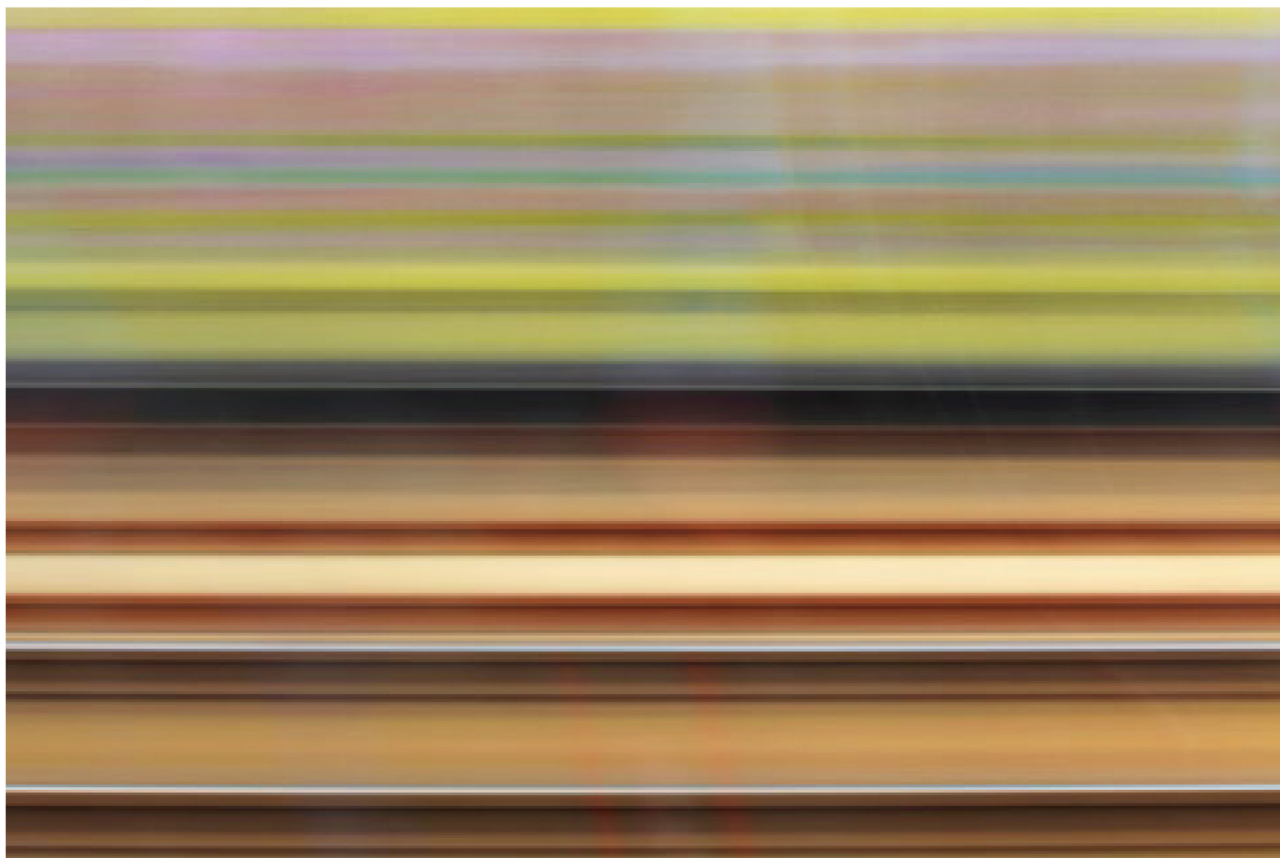
| Winter sonata 80 × 120cm Corning Gorilla Glass 2019



| Daybreak 120 × 200cm Corning Gorilla Glass 2019



| **Tropical Forest** 120 × 200cm Corning Gorilla Glass 2019



| Passing by lavender fields of Kasel 40 × 60cm Diasec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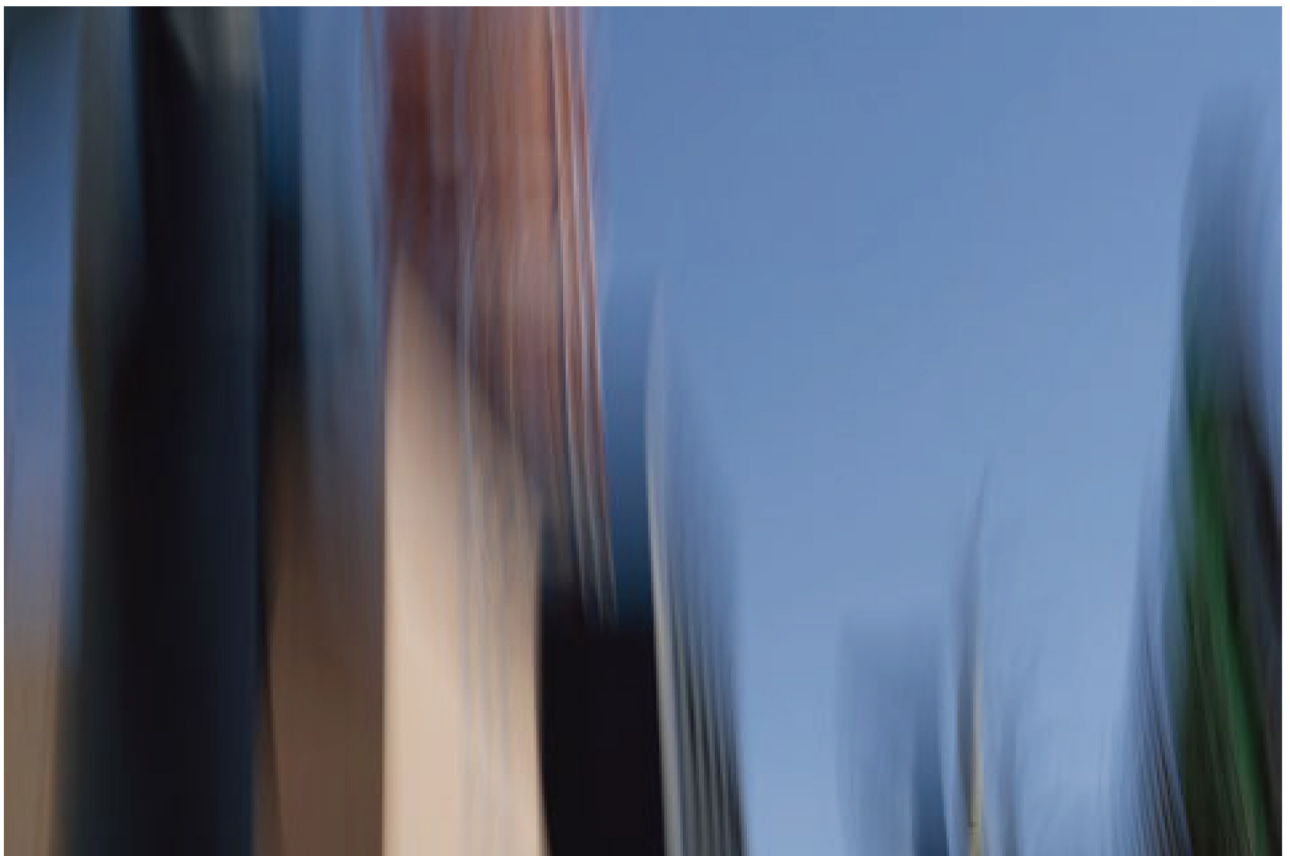


| Under construction 80 × 120cm Corning Gorilla Glass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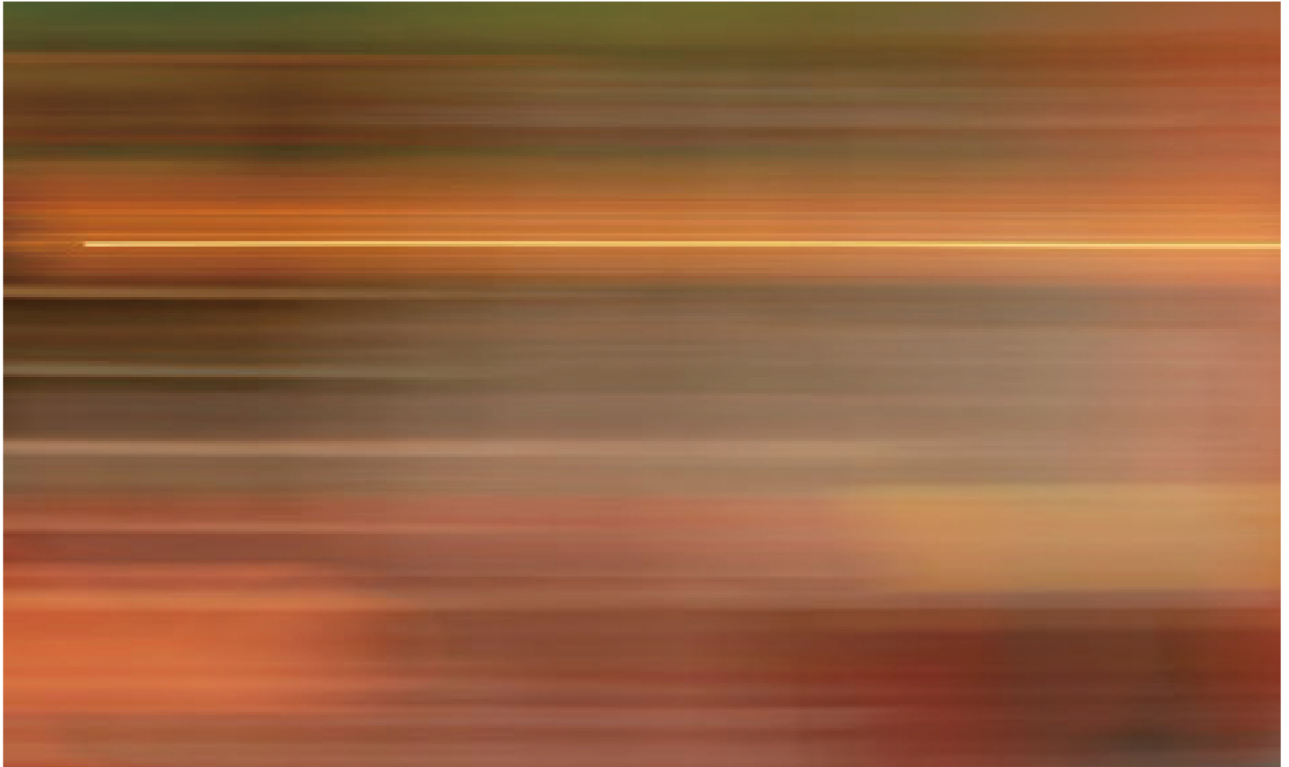
| Jigsaw puzzle 120 × 80cm Corning Gorilla Glass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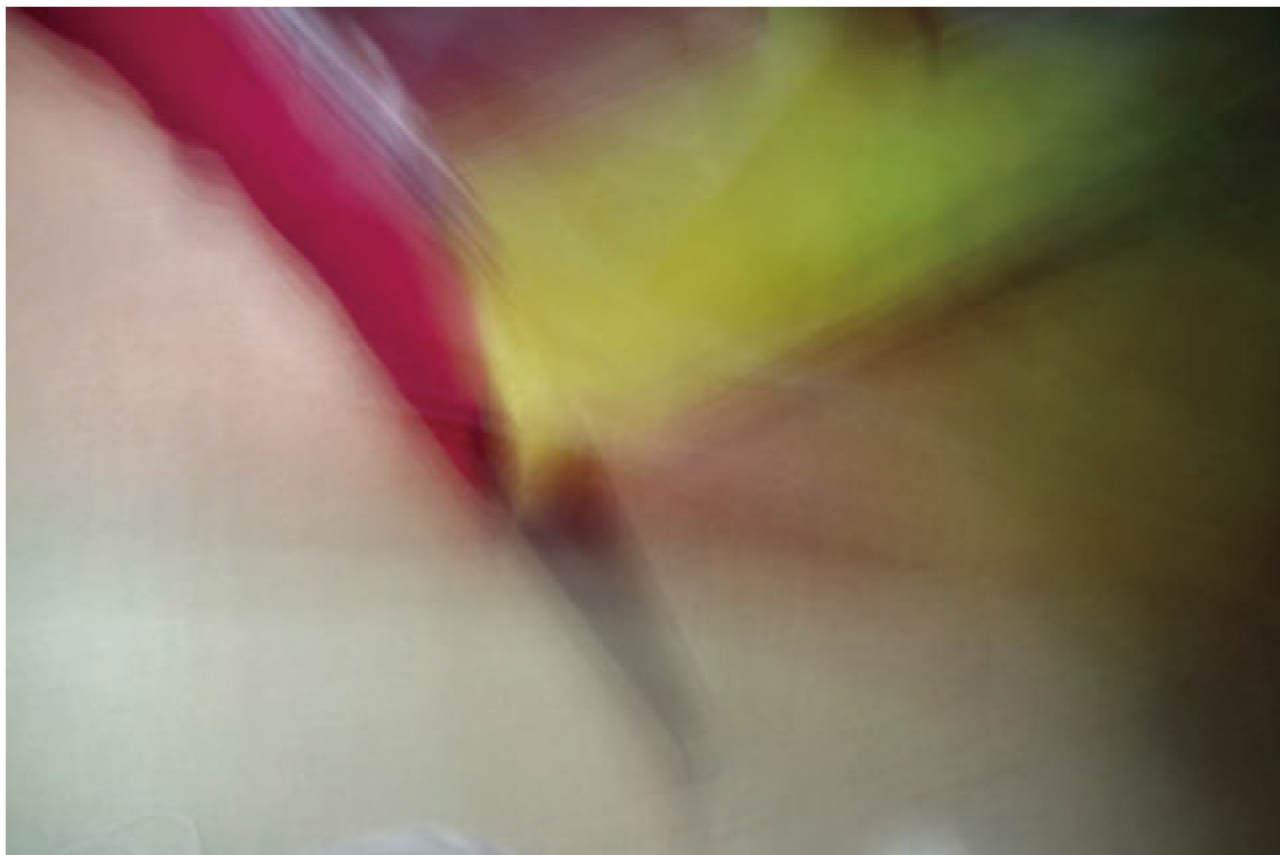
| Big Blue Brick 80 × 120cm Corning Gorilla Glass 2019



| Sapporo downtown 80 × 120cm Corning Gorilla Glass 2019



| Shining orange stripes 120 × 200cm Corning Gorilla Glass 2019



| Flapping wings 40 × 60cm Diasec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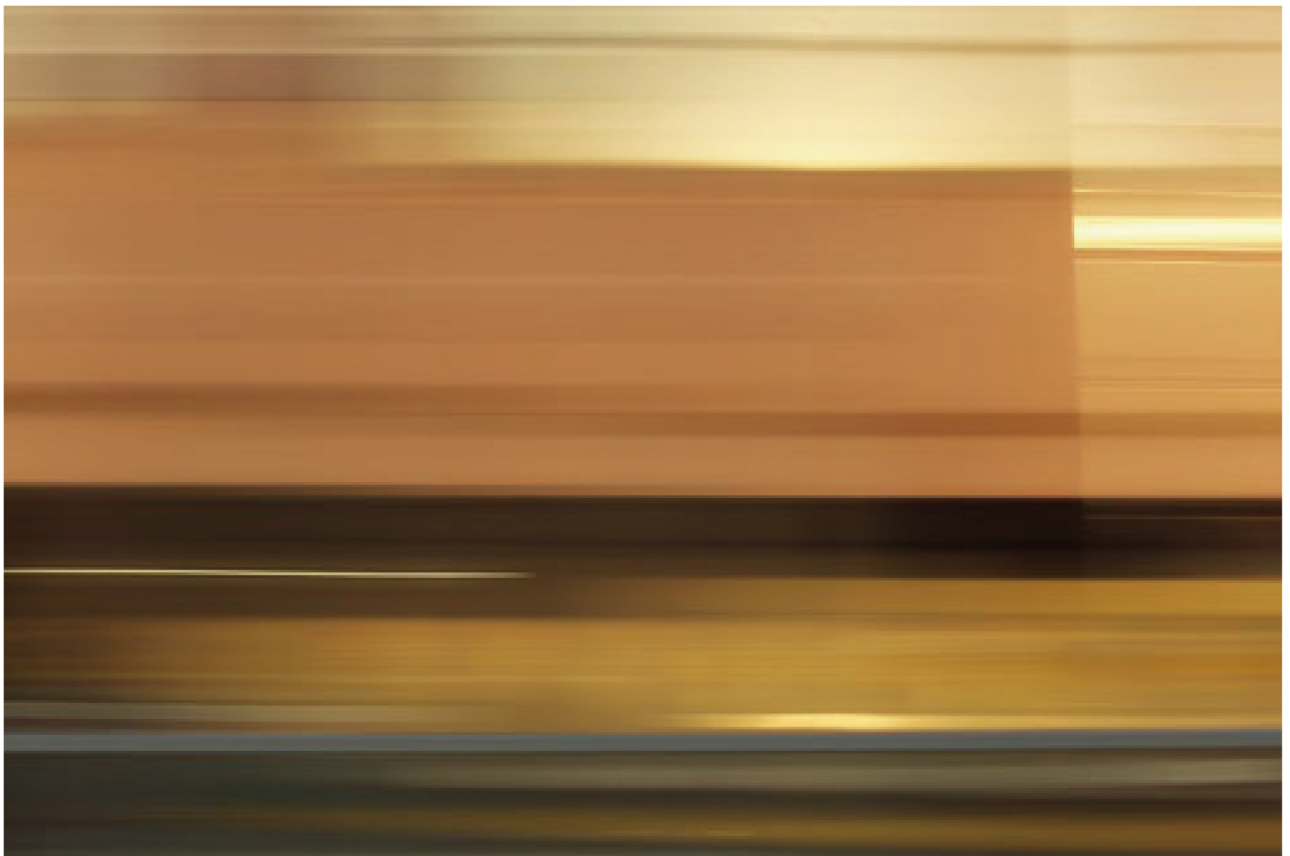
| Light glittering on the waves 40 × 60cm Diasac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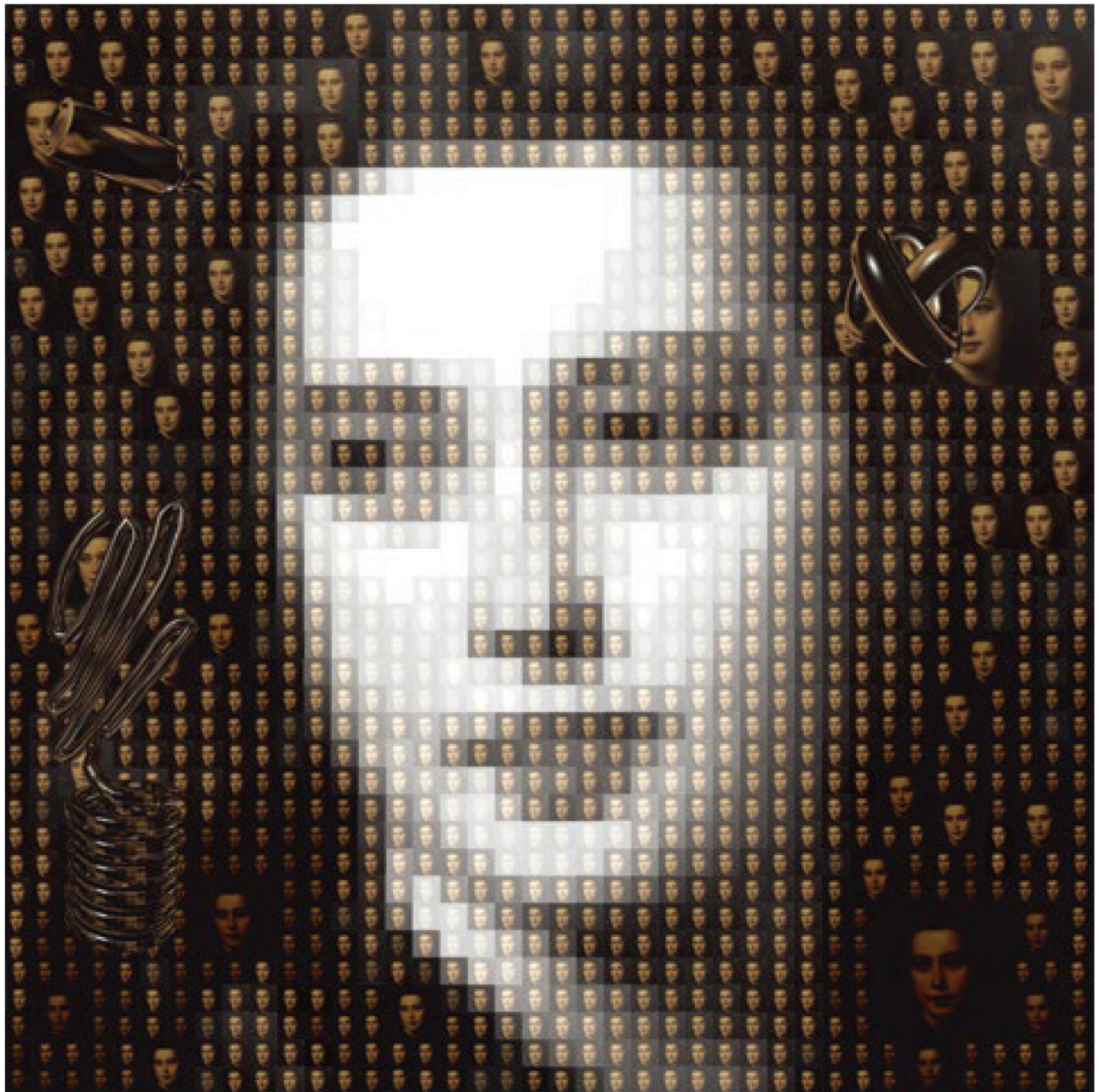
| Orange composition 40 × 60cm Diasac 2019



| Coming over 40 × 60cm Diasac 2019



| Brownish metal running 40 × 60cm Diassec 2012



| Digital Madonna 120 × 120cm Corning Gorilla Glass 1998

Bryan Paik (백철호)

1999

제 1회 환경컴퓨터그래픽전 녹색대전 입선, 포스코 갤러리

2000.11

백철호, 정하익, 황영환 3인전, 서울 청화랑, 부산 전경숙 갤러리

2001.4.12~17, 2002.4.20~28

서울판화미술제, 예술의 전당 미술관

2003.11

제 2회 개인전, 갤러리 예맥

2009.5.7~5.17

제 3 회 개인전, 갤러리 예맥, 청화랑

2011.9.14~19

한국디지털아트협회 정기전, 인사아트센터